

지방의원 국외 연수 난리통인데...

광주 북구의회, 온누리상품권으로 日 출장 ‘논란’

경찰, 구의원 등 16명 할인차액금 사적 유용 정황 포착
의원들 “기부에 활용하려 했을 뿐...반납 절차 진행 중”

광주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등 지역 기초의회 3곳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북구의회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출장 과정에서 출장경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할인받은 차액을 사적 유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북구의회가 진행한 공무국의출장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해외선진지 정책과 시설

탐방하며 지역에 접목할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일본 도쿄로 공무국의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대표의원 정재성 의원과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2명과 직원 4명이 참여했다. 출장은 북구지역 업체인 A여행사와 연계해 이뤄졌으며, 출장경비는 4400여만 원이었다. 출장경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와 항공운임, 준비금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들이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여행사에 전달해야 할 대금을 결제,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할인받은 차액을 즉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가 정해짐에 따라 출장 전인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자가 정액 지급 받은 출장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업무에 비취별 때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 중 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나아가 공무원의출장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

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실제로 사용하려 한 만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구의회는 일부 여비에 대한 반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영두 북구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지급했고,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쿄 출장 대표의원인 정재성 의원은 “관련 절차를 감사원에 했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까지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반납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납까지 시간이 걸린 부분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사무국 3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도 전남도의회와 15개 기초지자체 의회를 대상으로 사무국 직원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올여름 가장 더웠다...평균기온·폭염일수 ‘1위’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정체된 고기압 형성 주 원인

올여름(6~8월)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올여름은 특히 무더위와 함께 집중호우도 동반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했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26.1도로, 종전 가장 높았던 기록인 지난해 26.0도보다 0.1도 높았다. 이는 평년 기온(24.2도)보다 1.9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29일~7월11일 광주·전남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5일은 2위)를 기록했고, 7월9일에는 광주 일부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3도를 넘는 극한 기온을 보였다. 6월 말 이른 무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대기 상층에서의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정체된 고기압 구조가 형성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져 기온이 더욱 상승했다. 북태평

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하고, 열대 서태평양 대류 활동 강화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 등 여파로 평가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도 29.6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평년보다 22.3일 많은 수치로 앞선 기록인 2018년 25.9일보다 3.7일 늘었다. 열대야 일수도 25.7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14.6일을 기록하며 역대 2위 기록을 남겼다. 여름철 강수량은 697.9mm로 평년(703.4mm)과 비슷하고, 강수일수는 27.9일로 평년보다 8.4일 적었다. 반면,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시간당 최대강수량이 80mm를 넘는 사례가 광주, 나주 등 13개 지점에서 관측되기도 했다. 장마철 강수량은 58.2mm이었다. 이 밖에도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를 기록하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서로 존중하는 가족’ 4일 광주 서구청 들불출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라는 문구가 적힌 슬로건 티셔츠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책임자 4명 입건

광주경찰청 수사 결과 “안전 부주의·관리 소홀”...발화 원인 불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장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4일 금호타이어 화재 수사 브리핑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50대 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살해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 금호타이어 광주2공장 정전동 2층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4호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전체로 확산, 2공장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졌고 중상 1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수사 결과, 최근 5년간 광주공장

오븐기에서 화재가 총 18회가 발생했고, 이중 5회는 올해 불이 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 자동설비시스템으로 진화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또 금호타이어 측은 정밀한 원인 분석·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료·설비를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븐기 내·외의 소화 및 확산 방지 설비와 시스템 역시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연기·불꽃 감지기, 문자 자동 페쇄, CO2 자동·수동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확산하는 주 원인이 됐다. 특히 공장 내 작업자 휴게 공간에 대피방송, 경보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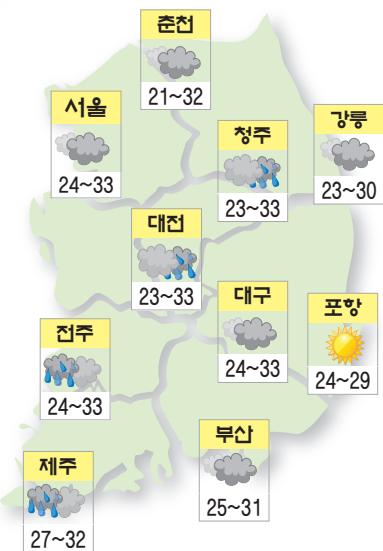
것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3층 휴게실에 있었던 20대 노동자는 화재 발생 17분이 지난 뒤에야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 신속하게 이 탈하지 못하면서 중상을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측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일부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사실도 파악됐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자체 조사와 외부 용역 등을 통한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다만 관련 법규와 회사 매뉴얼에 모든 재해 상황은 공장장 책임 하에 관리되도록 돼 있어 대표이사, 부사장 등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도 발화 지점에 CCTV가 없고 훼손 상태가 심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6:08 달출 17:37
예보 18:54 달진 02:56



광주	25~32
목포	26~31
여수	25~30
순천	24~32
구례	23~33
광주	24~32
임도	24~32
목신도	26~32
고종	23~32
진도	24~32

목포	미물(고)	00:21 / 12:12
여수	쌀물(저)	06:13 / 17:53
	미물(고)	07:23 / 20:10
	쌀물(저)	11:54 / --:--

1억 골드바 보이스피싱 차단

만년필 ○경찰이 1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

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 “영광에서 할머니 손님을 태우고 광주로 왔는데 목적지나 행동이 이상하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70대 할머니인 A씨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금 130돈(1억원 상당)을 구매해 전달하려던 사실을 확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1억원을 인출하게 한 뒤 자산 보호 명목으로 금과 구매를 지시하고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피해를 막았다고. 현장에 투입된 수사 인력의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피싱 조직의 증거채 및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 이산하 기자

광주 충장로에 ‘홍콩 분위기’ 입혔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세계적 관광지인 홍콩의 모습을 재현한 ‘홍콩골목’이 오는 6일 첫선을 보인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된 홍콩골목은 유동인구 유입과 도심 속 체류형 상권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장기간 방치됐던 폐점포 밀집 지역인 동구 충장로3가 33-1 일대 70m 구간에 총사업비 2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홍콩골목은 지난 2월 완공을 목표로 거리 디자인과 임대점포 구성, 판매 레시피 개발을 완료했으나 수행사 재선

정, 임대료 조정으로 인해 지연됐다. 여기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건물 누수까지 발생하는 차질도 있었다. 다소 늦었지만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한 동구는 방문객들이 실제로 홍콩 현지 에 온 듯한 느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온사인, 한자 조형물, 홍콩 스타일 간판 등을 조성했다. 홍콩골목은 1차(9월6일)~2차(10월2일)로 나뉘어 문을 열 계획이다. 6일에는 사브사브·튀튀 전문점 ‘키리키리 샤브’, 선술집 ‘차이차이’가 문을 열

고, 10월2일에는 홍콩골목 정식 개장식과 함께 양꼬치 전문점, 위스키 바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위스키 바는 과거 충장로의 영광을 되살리는 의미로 홍콩섬 내 부유한 주거지역인 미드 레벨(Mid Level)을 인용, 중국술·문구를 활용한 카테일을 선보인다. 동구는 홍콩골목을 통해 해점포 육성 사업, 팝업스토어 유치와 함께 SNS를 통한 사전 마케팅을 진행해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내일 ‘홍콩골목’ 1차 오픈...‘상권 신바람 기대’
양꼬치전문점·위스키바는 10월2일부터 운영

12일 충장로71 점포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 ‘호치’의 체험형 팝업스토어가 개소해 문화와 먹거리가 연결되는 공간으로 확대한다. 동구와 캐릭터 제작사는 K-푸드 캐릭터인 ‘호치’를 활용한 포토존과 굿즈숍을 마련, 방문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자연스럽게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콩골목 조성이 완료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감을 보였다.

김모씨(36·화정동)는 “충장로에는 야간에 즐길 거리 없이 저녁이 되면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다”며 “늦은 시간까지 충장로에 머물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로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충장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가 반값 임대 협약과 유동인구 증가 등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홍콩골목이 야간에도 시민, 관광객이 머무는 상권의 참բ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아간시간대 홍콩골목 모습.